



안병만 재경 이백향우회장, 이백면에 의류 600벌 기부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안병만 재경 이백향우회장이 고향 주민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여성의류 600벌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의류 600벌은 이백면 21개 마을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안병만 회장은 2024년 추석에도 홍삼세트 60박스를 원한 바 있으며, 안병만 회장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백면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도연 이백면장은 “고향 사람을 실천해 주신 안병만 회장에게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동, 치매예방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동동 건강사업 '어르신 몸도 마음도 튼튼' 사업의 일환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정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추진했다.

도동동은 올해 2월부터 7회에 걸쳐 치매 비로 알기, 치매 예방수칙 3·3·3 안내,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 치매예방 체조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카페 체험 Day' 운영

남원시 죽향동(동장 임정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카페 체험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풍년제과 하정동커피(대표 이기연) 후원으로, 올해 3월부터 매월 1회 진행되며, 평소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화차에는 카페 체험과 함께 제과를 제공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다가 나와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니 젊어진 기분이라며, 다음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산림정원과, 장학기금 모금 후원 캠페인 동참

부안군 산림정원과(과장 김기원)는 최근 부안군농민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장학기금 모금 후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1만원 정기 후원계좌를 통해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교육 복지 화상을 위한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산림정원과는 숲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푸른 부안을 만들기 위해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숲·생활숲 조성, 산림재해 예방, 정원문화 확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로운 70년, 처음처럼 더 단단하게”

제41대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 회장 취임… 출범 7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새로운 70년을 향해, ‘처음처럼, 더 단단하게’ 우리의 자부심과 모교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갑시다.”



회 출범 선포식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총동창회 출범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백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지난 28일 오후 6시 전북대 진수당 개교77주년 기념홀에서 연임한 제41대 최병선 회장 취임식과 집행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JTV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유정기 전북교육청 교육감 대행, 우병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등 동문·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최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총동창회 장학금 전달 △수석부회장 유병성·사무총장 이재준 임명장 수여 △제41대 총동창

서 제작 학내 기념 조형물 설치, 주요 공간 리모델링, 홈커밍 행사 개최, ‘출범 70주년 장학생 선발 등 비전을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은 동문들의 헌신과 사랑이 만든 역사였고, 이제는 100년을 향한 이정표를 새길 때”라며 “총동창회는 동문과 모교,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장학사업은 총동창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자부심”이라며 “지난해 8,3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 규모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제이디로지스·위드인 사람과 함께, 김제 드림장학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제이디로지스(대표 이상욱)와 (사)위드인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협약과 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주)제이디로지스 이상욱 대표와 (사)위드인사람과함께 김대호대표가 정성주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 협약식과 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드림장학금’은 시 드림스타트와 협력해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5명을 선정,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1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 및 자기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주)제이디로지스는 전주시를 시작으로 남원, 김제 총 3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3억 원 상당을 후원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기로 했다.

쿠광 로지스틱스의 퀵플러스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제이디로지스는 물류·유통분야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부터 (사)위드인사람과함께 와 연탄봉사, 저소득취약



계층 아동 연말 선물 나눔과 캠페인에 동참하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또 사)위드인사람과함께는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발달,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상욱 대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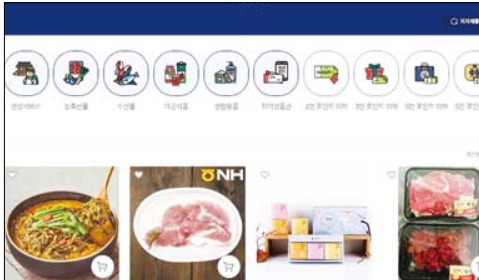
남원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 선정... 총 33개·70종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19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 9월 1일부터 총 33개 품목 70종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새 답례품으로는 △백향화 식품 △조청 △묵 세트 등 △김병정미술관 아트상품 △액세서리 △뷰티·화장품 △방랑유기과 같은 생활·공예품 △전북투어패스 남원관광여행권 △컬러풀컬처스 공예체험권 등이며, 기부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답례품 발굴 공급으로 다시 기부하고 싶은 남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에 기부해 주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 중심의 답례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매년 중



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뉴질랜드, 5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특성화고 실습생 푸드트럭 지원사업(1대)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농촌현장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와 용지농협(조합장 김웅)은 최근 용지면에 거주하는 홀로노인을 찾아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협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NH농촌현장봉사단의 일환으로, 농업인행복복합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향 농업인 및 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이를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에 필요한 밀착형 지원을 통해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다.

김유현 김제시지부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웅 용지농협 조합장도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경진원, 중증장애인과 '동행 영화관람' 행사

전북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은 최근 완주 휴스네마에서 장애인식개선 행사 ‘동행 영화관람’을 개최하고 영화 ‘썬비밭’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외출과 이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은혜의 동산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 경진원 임직원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경진원 임직원들은 휠체어 이용자의 아동을 돕고 좌석 안내와 안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관람 중 화장실 동행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함께 휠체어 아동 및 보조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등 의미 있는 체험도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팝업놀이터 개회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29일 인후동 가재마어린이공원에서 지역 미취학 아동과 가족 100명이 참석한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를 개최하여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팝업 놀이터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심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물총놀이 △물풍선 놀이 △대형 비눗방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계절과 주제에 맞는 맞춤형 팝업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1억1000만원 장학금 기탁

(재)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최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원)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1억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재)김제시립장학재단 정성주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김범식 김제지점장 등이 참석하여 김제시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전북은행은 지역 유일의 향토 은행으로, 2011년부터 15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누적 24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농협, 무주농업의 미래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29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규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협동조합 정신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앙교육원 김학수 교수를 초청하여 ‘농협의 가치와 역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신규조합원은 무주농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인으로서, 이번 교육은 의미있는 교육이었다.

/무주=전문선 기자